

월드컵과 미디어... '앞만 보는 경주마' 안돼

4강 신화 들뜬 미디어, 4강 환상 조장
경제·문화 활동 위축 외면, 월드컵 올인
한국에 축구가 어떤 의미?... 반문할 때

글_ 정준성 문화평론가·미디어연대 이사장



월드컵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되었다. 제18회 월드컵을 개최하는 독일은 이 대회 기간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테러나 홀리건의 난동을 방지하려는 예방책에 골몰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월드컵 주최국이었던 우리가 아무 탈 없이 모든 축구경기를 잘 치른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다행스럽다.

특히 그 영향력과 가치가 커지고 있는 매스미디어(신문, 라디오, TV, 인터넷, 영화, 광고 등)가 앞장서고, '붉은 악마'라는 자발적 응원단이 결성되어 4강이라는 신화까지도 이루어 내었던 것이다. 매스컴의 총아인 인터넷, 모든 형태의 방송과 TV 등이 거대권력화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 당시 월드컵 개최를 전후한 미디어 활동의 극대화는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매스미디어, 문화 소프트웨어 발전에 무심

하지만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이를 계기로 어떠한 문화예술의 발전과 진척이 있었다는 긍정적 효과나 결과를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들어본 적이 없다. 문화월드컵이니 체육문화의 선진화니 월드컵경기장의 수익성 제고와 축구의 대중화 등등의 거창한 구호나 정책이 월드컵 개최 이후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각종 국내외 이슈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를 알리고 권장해야 할 미디어는 협조나 비판에 소극적인 지난 4년을 되돌아보지 않고, 붉은 악마, 태극전사 23인 선발과 훈련과정, 아드보카트 감독의 일거수일투족, 경기상대국들의 선수나 감독에 대한 각종 루머와 가십 등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아무 탈없이 무사하게 치른 2002년 한·일월드컵부터 이번 독일월드컵 개최 전까지, 우리의 축구열이 한국 문화 발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매스미디어가 6월 한 달을 일상생활이나 국내외 소식에 알리는데 소홀한 채 독일월드컵에만 '올인'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축구와 문화·예술 접목 시도한 프랑스

월드컵에 집중하더라도 우리 미디어는 독일월드컵의 다면적인 차원을 취재하여야 한다. 우리 한국과 관련 있는 경기장뿐만 아니라, 개최도시들 모두에 끊임없이 관심과 연구를 넓혀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번 독일월드컵은 우리에게 태극전사들의 승부뿐만 아니라 환경위생, 관광객, 관중, 응원단 그리고 문화상품 등에 관해 우리가 개최하였던 한일월드컵 때의 모든 것과 비교·분석하여 앞으로 우리가 유치할 각종 세계 스포츠경기에 참고서 내지는 지침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관광국가가 아니다. 스포츠용품도 실용적이어서 라틴계 국가들(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의 미학적 면모와는 사뭇 다르다. 이것이 표면화된 것이 월드컵 마스코트로 사자모양의 '골레오'(Goleo)가 남미의 낙타 '라마'(Lama)와 닮아 축구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그에 비해 프랑스 여류작가로 신문기자로 문화부장관을 지내고 축구팬이었던 지루(F. Giroud)는 "발에 따라 움직이는 온몸의 예술스포츠인 축구는 근육질의 아름다움, 때로는 발레 이상으로 격렬한 동작, 그리고 경기의 승부욕 등의 총화(總和)이며, 이의 화신(化身)으로 플라티니(M. Platini : 1998년 프랑스월드컵 조직위원장)를 좋아한다"고 자신의 에세이집과 매스미디어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축구와 문화·예술 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그러한 전통이 프랑스에서는 이번 독일월

드컵 이후 은퇴를 예정하고 있는 지단이나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주장이었고, 자서전까지 펴내고 은퇴한 드사이(M. Desailly)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본다. 플라티니, 지단, 드사이 등 모든 프랑스 축구영웅이 외국이민자들의 후손으로 이러한 문화인류적 융합적 세계화는 우리 미디어가 심도 있게 눈여겨보아야 할 주제다.

이질·적대감 극복, 배려와 화해 '축매' 역할 해야

내부문제로 완전통합까지는 아직도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 상호간의 교류로 과거의 부정적인 인습과 전통은 체육계, 특히 월드컵, 유럽컵 등 각종 축구대회를 통해 서서히 무너지고 화합과 화해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는 EU회원국들의 매스미디어를 통한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말하자면 미디어의 객관적이고 냉정한 취재와 과학적 데이터에 바탕한 르포나 다큐는 선정주의와 선전·선동을 배제한 것이어서 월드컵대회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케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감정에 치우쳐 우리를 꺾은 상대팀이나 국가에 대해 비방과 증오심까지 여과 없이 방영하거나 해설까지 곁들여 쏟아낼 우려가 있는 것이다. 제10회(1974년) 월드컵을 서독이 개최한 것이나, 제17회(2002년) 월드컵을 한국이 개최한 것은 분단국가란 점에서 서로 닮았다. FIFA의 집행부(특히 당시 아벨란제 위원장)는 한일양국의 공동개최를 결정하였을 때, 북한도 축구경기장을 제공하여 공동개최에 참여토록 제안하였으나 불발에 그쳤다. 이번 2006년 독일월드컵은 동서독의 통합에 의한 통일 국가 수립과, 수도를 베를린으로 환원하고 남(뮌헨 중심의 바바리아)과 북(베를린 중심의 프러시아) 독일간에 쌓여있는 문화권의 이질성과 적대감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치러진다 하겠다.

문화의 범주서 '월드컵 등 스포츠 민주화' 도모

우리는 1954년부터 월드컵 본선에 7번째 참가하고 있다. 1990년 제14회 이탈리아월드컵 때부터 빠짐없이 본선에 참가하고 있다. 하지만 4년마다 보여온 국민의 응원 열광과 환호, 선수들의 몸값과 기업의 광고, 마케팅 집착에 비해 국내외의 교류와 배려와 호혜에 대해서는 인색하다.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나 매스컴부터 시작해 축구에 관계되는 모든 유관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축구는 위엄이나 권위 그리고 금전에 바탕 한 스포츠가 아니다. 우리 FIFA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이를 위해 각국의 축구협회는 정치지도자들(넬슨 만델라나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의 자선재단에 협조, 협력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 축구공은 아이들의 눈을 빛나게 하고, 축구는 삶의 학교이다. 유럽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러한 가치를 망각하고 있다”

피파 회장인 블래터가 (르 피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도 선진국 반열로 진입하고 있다고 매스컴이 앞장 서서 자만하기 전에 각종 공·사기관들이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체육을 강화하고, 축구공과 뭘 공간을 확대하여 아마추어와 프로를 자연스럽게 순열조합화 하여, 문화의 범주 속에서 장기적으로는 월드컵 등 모든 경기를 관중으로, 응원단원으로서 민주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억압적 총동에 경도된 여론 금물

1998년 프랑스월드컵대회 때도 안티월드컵(Anti-Coupe de monde)이 프랑스 전역에 결성되어 축구장이나 응원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고성방가 하는 서포터나 축구팬들의 광적 행동을 막아달라고 각종 매체에 호소하고 월드컵 경기 안보기 운동까지 하기도 하였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용, 타인의 의견 검토, 사물 관찰의 객관성, 과학성 등이 기초가 되는 미디어민주주의(Media democracy)를 확립, 개진(改進)해야만 감성과 총동에 경도된 여론 오도가 경감되어 나갈 것이다.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산재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이고, 획일적인 체제수단으로 돈과 억압적 권력, 폭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비굴함을 일삼는 매스컴이 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 카테고리 한국의 일부 중요 매스컴이 들어가지 않으려면 초심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독일월드컵 경기를 전후하여 우리의 다른 경제활동이나 문화활동이 위축 내지 축소되어도, 이에 신경 쓰는 어떠한 언론매체도 없는 이상, 현재진행형인 세계화 물결 속에서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우리 각자의 능력으로 막아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과 '기대' 가 한 민족의 특성이라고 자위하면서... [***]